

찾아가는 백범이야기 '나도 백범白凡이야'

특별기획 순회전을 개최하며

백범 김구 선생(1876.8.29~1949.6.26)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민족의 지도자이며 겨레의 큰 스승이다.

12살에 신분차별을 깨닫고 양반이 되기 위해 과거를 보았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아기접주'로 활약하였다. 황해도 일대에서 교육자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쳤으며, 경술국치를 당해 일제에게 15년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청하여 경무국장이 되었다. 이어 내무총장·국무령·주석을 역임하며 항일운동의 최선봉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해방 후 환국하여 자주 독립국가 건설과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49년 6월 26일 친일·반민족 세력이 쓴 흉탄에 서거하였다.

'백범 白凡'은 천한 백정白丁과 평범한 범부凡夫까지도 김구 선생 만큼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는 뜻이다.

이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되찾는데 밑거름이 된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을 보고 배우며 우리도 '백범白凡'이 되어보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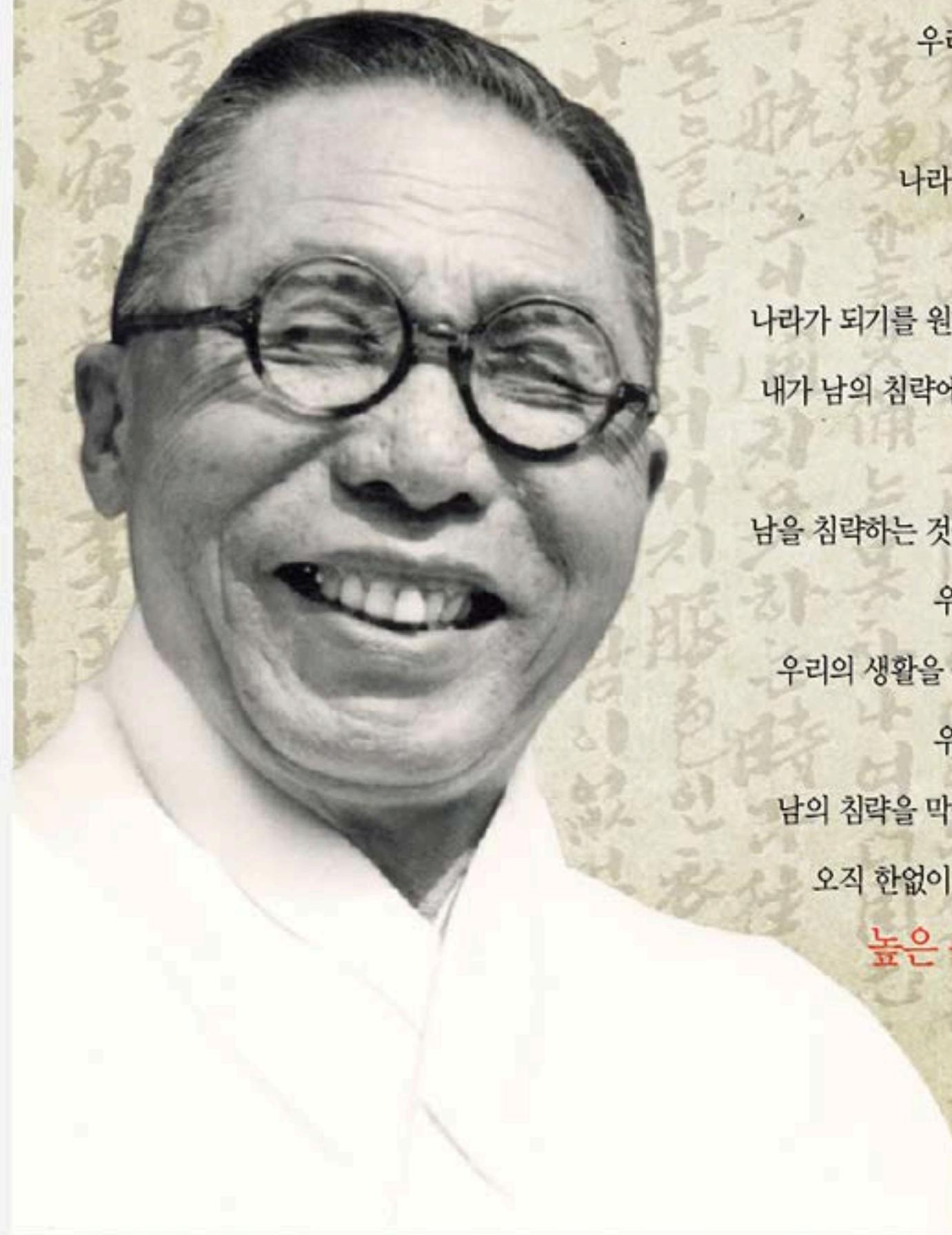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가족

台凡金九

김구는 31살에 최준례와 결혼했다. 딸 셋과 아들 둘을 두었으나, 세 딸은 어려서 죽었다. 1919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혼자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920년에는 부인과 큰 아들이, 1922년에는 어머님이 상하이로 오셨다.

부인은 둘째 아들 신을 낳고 계단에서 굴러 병을 얻었다.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무료병원에 입원하였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김구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부인은 혼자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36살이었다.

며느리가 죽자 환갑이 넘은 어머니 곽낙원이 두 손자를 키웠다. 어머니는 아들 김구가 21살에 치하포 사건으로 투옥되었을 때 부잣집 동자꾼을 하며 옥바라지를 했었다. 평생 큰 일하는 아들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는 1939년 4월, 중국 충칭에서 82세로 돌아가셨다.

큰 아들 인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미생과 결혼하여 딸 효자를 낳았다. 17살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인은 충칭에서 폐병에 걸려 1945년 3월 29일에 죽었다. 일본이 항복하기 5개월 전이었다.



상하이에서 찍은 가족사진(1921) 왼쪽부터 김구·인·최준례



상하이 조계 지도



왼쪽부터 큰 아들 인·김구·둘째 아들 신



9년만에 만난 가족(1934)
왼쪽부터 인·곽낙원·김구·신



큰아느리 안미생과 경교장에서(1946)

유년기와 마음 좋은 사람

김구는 조선이 일제의 압력으로 개항하는 1876년 황해도 해주 백운방 텁골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창암이었다. 창암은 아버지의 멀쩡한 숟가락을 부러뜨려 옛을 바꿔먹거나, 집에서 몰래 돈을 갖고 나가 떡을 사먹으러 가는 등, 유난스런 개구쟁이였다.

12살에 자신의 집안이 '양반'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반이 되기 위해 과거공부를 하였다. 17살에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낙방하였다. 당시 과거장은 돈과 권력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어지러운 형편이었다. 창암은 과거에 합격하여 양반이 되려던 뜻을 버렸다.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공부를 하였다. 공부한대로 자신의 상을 보니 평생 '천하고 가난하고 충하게 살 팔자'였다.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하지만 관상책에 사람은 '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相好不如身好 身好不如心好'는 구절을 보고, 평생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황해도 해주 백운방 텁골

동학과 스승 고능선

金九

창암은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동학을 믿기로 결심하고, 결심의 표시로 이름을 창수로 바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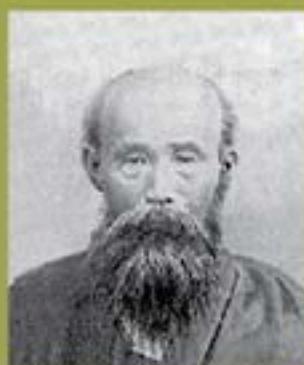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창수는 동학군의 선봉장이 되어 황해도 해주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월등한 무기를 가진 일본군과 관군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했다. 전투에서 패한 창수는 안태훈(안중근 의사 아버지)의 도움으로 몸을 숨겼다.

안태훈의 집에서 평생 스승이 될 고능선을 만났다. 고능선은 황해도의 대유학자였다. 고능선은 창수에게 '사람의 처세는 마땅히 의리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을 할 때에는 '판단 → 실행 → 계속'의 세 단계로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는 창수는 '그날부터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고선생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고백하였다.



해주성 전투 기록화



동학의 선조 고주 최시현



고능선

치하포 사건

白凡金九

懸得
崖樹
撒攀
手枝
丈無
夫足
兒奇

○ 평양
○ 치하포
○ 해주
○ 개성
○ 서울

1896년 3월, 창수는 황해도 안악 치하포에서 수상한 일본 사람을 만났다. 분명 일본 사람인데 한복을 입고 조선 사람 행세를 했다. 흰 두루마기 밑으로 칼집이 보였다. 틀림없는 일본 사람이었다.

'이 자가 우리 국모를 사해한 미우라三浦謙樓가 아닐까? 미우라가 아니더라도, 변장하고 칼을 차고 다니는 걸 보니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독버섯이 명백하다. 내가 저놈 하나를 죽여서라도 국가의 치욕을 씻어 보리라고 판단했다. 창수는 일본 사람을 처단하였다. 그의 소지품을 보니 쓰치다土田謙亮라는 일본 육군 중위였다.

창수는 "국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왜인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방 텃골 김창수"라고 현장에 방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3개월 후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집행 직전 고종의 명으로 집행이 중지되었다.

得樹攀枝無足奇 懸崖撒手丈夫兒

득수반지무죽기 懸애살수장부아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
비공에 대궐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장부로다.



치하포 사건으로 감구가 옥살이를 한 인천감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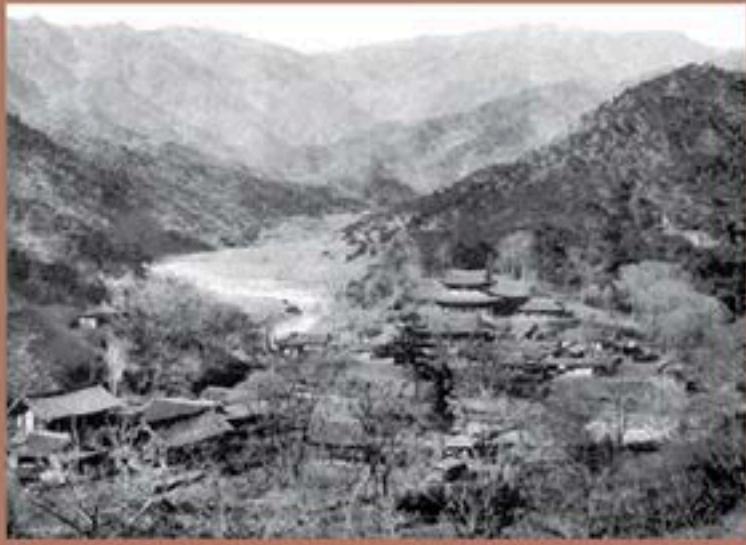


한국 후 고종 능에 장례한 김구(1906.2.20)

탈옥과 승려생활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감리서에 갇힌 창수는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 의거했음을 당당히 밝혔다. 또한 재판에 간섭하는 일본 관리를 질타하는 등,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창수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사형이 확정되자, 창수는 1898년 3월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김주경의 뜻에 따라 탈옥했다.

서울을 거쳐 오산·공주·강경·남원·함평·무안과 목포·해남 관두·강진 고금도·완도·장흥·보성 득량·화순 동복·담양·하동 쌍계사·계룡산 갑사 등지를 방랑하다가 그해 늦가을 공주 마곡사에서 승려가 되었다.



마곡사

보성 은거가



보성 득량면 쇠실마을 김광언 가

보성 득량면 쇠실마을에서 창수는 40여 일간 은신하였다. 김광언의 집에 머물면서 지역민에게 시대상과 우리역사를 가르쳤다. 창수는 이곳을 떠나며 선씨 부인으로부터 필낭을 선물 받고 답례로 자신이 보던 책 「동국사기 東 國 史 記」를 남겼다. 이 책에는 당시 가명인 김두호의 서명과 이별을 아쉬워하며 남긴 '이별난' 한시가 적혀있다.

함평 은거가



함평 이재혁 가옥의 육모정 터

1898년 인천감리서를 탈옥한 김구가 삼남을 잠행할 때 머물렀던 함평 이동범 진사의 집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이진사의 아들 이재혁 가옥이 있다. 당시 김구는 '낮에는 연못 가운데 있던 육모정에서, 밤에는 다락방에서 기거했다.' '함평군사 참고'고 전해진다.

가장 낮은 사람

백범이 되다

白凡金九

김구는 1903년 기독교에 입교한 후 본격적으로 교육계몽운동에 나섰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동녕·전덕기·이준·최재학 등과 '조약반대 상소'를 올리고 반대시위를 주도하였다. 1908년에는 해서교육총회 학무총감에 선임되어 황해도 지역을 돌며 "양반도 깨어라! 상놈도 깨어라!"고 절규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안창호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가 만들어졌다. 김구도 참여해 활동하였다. 신민회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던 중, 1911년 일제가 조직한 '안악사건·105인사건'으로 김구는 4년 8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김구는 옥중에서 이름을 '구九'로, 호를 백정白丁과 범부凡夫도 애국심이 자기만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백범白凡'으로 바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단단히 하였다.



황해도 장원 경진학교 교사사절 김구와 학생들(1906)



서대문경옥

“나라를 남에게 먹히지 않게 구원하겠다는 내가, 남의 나라를 한꺼번에 삼키고
되씹는 저 왜구와 같이 밤을 새워 일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

스스로 물어보니, 내가 과연 망국노亡國奴의 근성이 있지 않은가 하여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다.”

- 1911년 옥중에서 -

임시정부의 문지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고 독립선언을 했다. 일제의 강제점령을 부정하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김구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김구는 105인 사건으로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아를 할 때 ‘우리도 어느 때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내가 그 집의 뜰도 쓸고 창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 달라.’고 기원했었다.

김구는 안창호를 찾아가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청하였다. 회의 결과 김구의 국내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경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경무국장은 임시정부와 주요 인사를 보호하고, 일제 밀정을 찾아내 설득하거나 처단하는 직책이었다.



경무국장 시절 김 구



1919~1932

백범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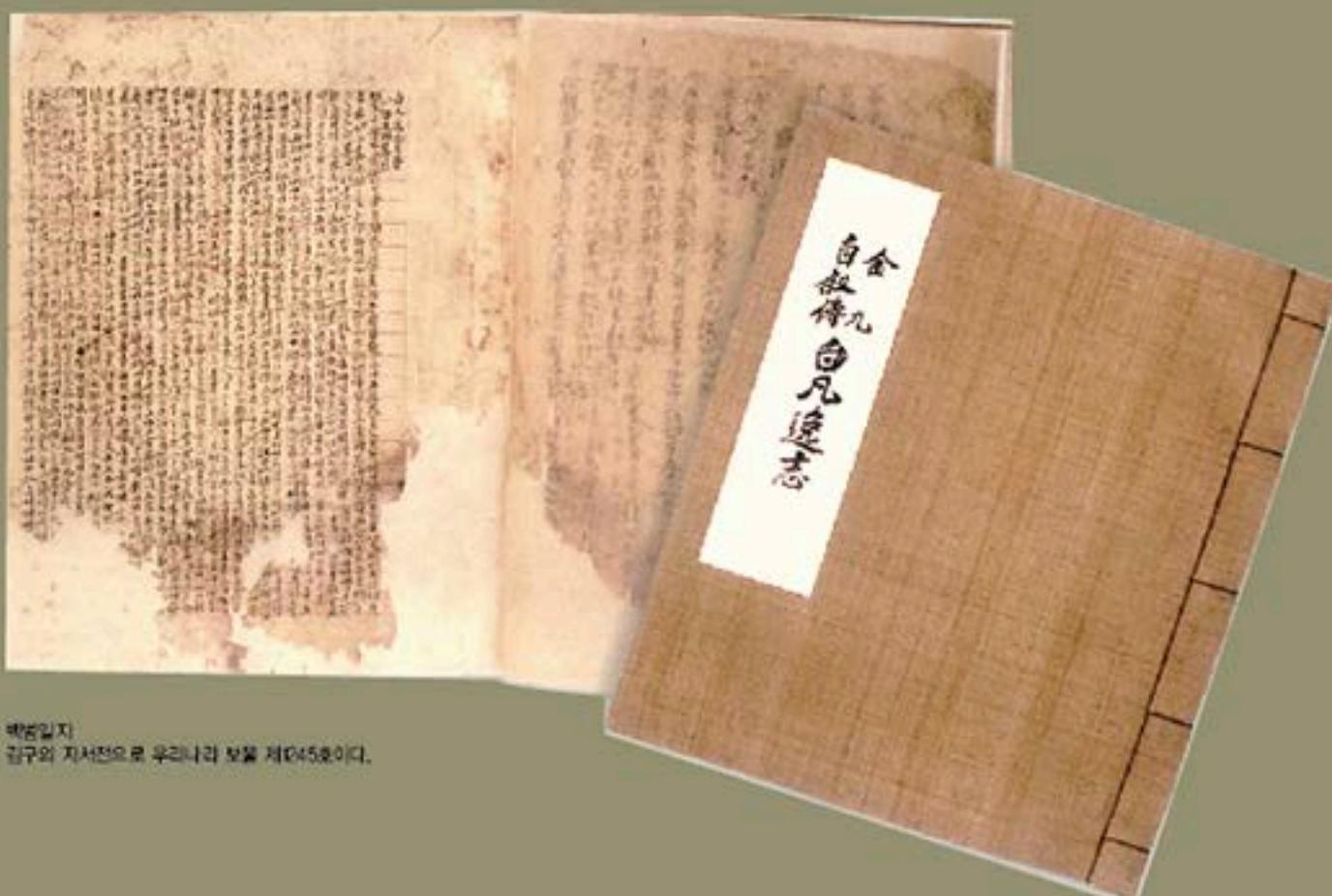
白凡金九

『백범일지』는 김구가 두 아들과 국민에게 남긴 유서다. 한권의 책이지만,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한다. 발간 50주년인 1997년에 보물 1245호로 지정되었다. 『백범일지』는 현재 일본어·중국어·영어·독일어·몽골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읽히고 있다.

상권을 쓸 때인 1928년은 독립운동이 가장 어려운 때였다. 독립운동 자금과 인력을 보급해주던 국내와의 비밀연락망이 일제에게 일망타진되었고, 임시정부는 정부 청사의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였다. 김구는 일제와 싸우다가 죽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고국에 있는 어린 두 아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알려주고 싶어 쓴 것이 『백범일지』 상권이다.

하권은 충칭에서 썼다. 일제의 패망이 눈앞에 보였지만, 김구의 나이도 70살이 가까웠다. 독립운동에 대한 경륜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것이 『백범일지』 하권이다.

일제 패망 후 환국하여 나머지 일들과 우리민족 철학의 대강령으로 정리한 '나의 소원'을 첨부하였다. 1947년 『백범일지』란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백범일지
김구의 자서전으로 우리나라 보물 제1245호이다.

일본의 심장을 거누다

1920년대 말 독립운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의열투쟁을 선택했다. 1931년 한인애국단을 창단하고 그 책임을 김구에게 맡겼다.

김구는 의열투쟁을 실행하기 위해 미주지역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미주지역 동포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힘껏 도왔다.

이봉창이 찾아왔다. 한인애국단 1호 단원이다. 이봉창 의사는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 일왕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렸다.

윤봉길이 찾아왔다. 한인애국단 2호 단원이다.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의 천장절(일본 국왕의 생일) 및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던졌다. 성공이었다. 이외에도 이덕주·유진식의 조선총독 암살과 유상근·최홍식의 관동군 사령관 처단 시도 등도 있었다.

이봉창·윤봉길 의사 의거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과 더불어 한국 독립운동의 3대 쾌거로 일컬어진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우리민족에게 독립할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이정장 의사 (033) 12-13



이용장 선서문(631. 12. 13)
나는 작성~~승~~^승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제~~^제를 도적~~제~~^제하기로
약속한다.



한국대 국단 단장 김구와 윤봉길 의사(1932. 4. 27)

피신과 유랑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



속설 대한민국 민족사전부 기념관



정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第10章 项目管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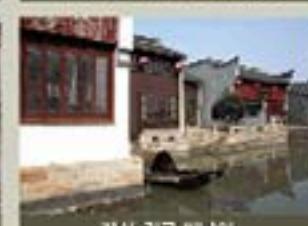
상하이 디한인국 임시정부 기념관



31W 9-112B 22 08-19



한국은행 기관지 제100호



三才圖會

윤봉길 의거 후 일제 경찰이 프랑스 조계를 급습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안창호는 일제 경찰에 잡히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이전하였고, 김구는 자살로 파신하였다. 일제는 김구를 체포하기 위해 60만 대양大洋(약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윤봉길 의거 후 장제스는 김구를 만나자고 했다. 김구는 장제스에게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린荫高官學校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여 군사기부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군이 베이징·톈진에 이어 상하이와 난징을 점령하자, 임시정부도 피난길에 올랐다. 전장으로 옮겼던 임시정부는 창사·광저우·류저우·치장으로 옮겨 다녔다.

상하이를 떠난 이래 8년 동안 중국대륙 각지로 옮겨 다니다가, 1940년 9월 중국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인 충칭에 정착하였다.

조국광복이 멀지 않았다

1940년 충칭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강력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활동하였다. 1940년 9월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대일전선에 적극 참여하였고, 1941년 12월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945년에는 독일에도 선전포고하였다.

1941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광복 후의 자주독립국가 재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임시정부와 별도로 활동하던 조선민족혁명당 등과 통일을 추진하여, 1944년 4월 마침내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한국광복군은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 '독수리작전'이란 이름으로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하였다. 중국 엔안의 조선독립동맹과 국내의 건국동맹과도 연계해 통일전선을 추진하던 중, 일제가 항복해 모든 노력이 아류되지지 않았다.



OSS 도노반 William J. Donovan 국장과 국내산업작전을 협의 하고 시안 광복군 제2지대 정문을 나서는 김구(1945.8.7)



한국광복군 성립장례식에서 대례사^司하는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김구(1940.9.17)



한국광복군 제5지대(1941.10)



청진대관 한족부터 노농시·김준연·정준하

감격의 귀국, 38선을 넘어서

일본이 항복했지만 임시정부는 바로 환국할 수 없었다.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일을 끌다가, 결국 개인자격으로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차례로 나뉘어 환국하였다.

일제의 패망으로 소련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국토는 분단되었다.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임시정부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 이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더욱 강력해지는 냉전체제로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세워질 위험에 처하자,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자며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남북협상에 참가한 김구는 "남북한 모두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고 절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북쪽에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민족도 분단되었다.

38선에 선 김구(1948.4.19.)



‘의리’를 지키고 ‘쟁족’하자



상의사 묘소 참배하는 김구



백범학원 개원식 (1949.1.7)

김구는 환국 후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유골을 찾아 용산 효창원에 안장하였다. 1946년 7월 6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유골을 안장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빈 무덤도 만들었다. 1948년에는 이동녕·차리석·조성환의 유골도 안장하였다.

김구는 왜 용산 효창원을 선택했을까? 고려 말에는 몽골군의 병참기지가,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의 보급기지가 있었던 곳이 용산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군이 주둔하였고, 일본군이 물러나자 미군이 주둔하였다. 김구는 외세의 상징인 용산에 우리 민족의 정수인 ‘독립정신’을 심어놓은 것이다.

김구는 독립된 나라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청년들을 위해 건국실천원양성소,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호’와 이름 ‘창암’을 딴 ‘백범학원’과 ‘창암학원’을 세웠다. 김구는 그들에게 생족爭足할 것을 강조했다. 생족은 ‘머리’가 되려고 싸우지 말고, ‘발’이 되려고 애를 쓰라는 뜻이다. 즉 실력도 없이 높은 자리를 다투지 말고, 먼저 자기의 실력을 헤아려 낮은 일부터 충실히 하면 결국 밀려서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다.

지나온 자취를 찾아서



한국 민족학회



충북도 안대중의 집에서 만나 청국 시절을 같이 했던
김현지 가족과 인사(2008.9.29)



卷之三



부산 국립현대미술관 1993.9.22



卷之三

1898년 3월 탈옥수의 신분으로 삼남지방을 향했던 김창수가 48년이 지난 1946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지나온 자취를 찾아 나섰다. 이는 과거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보은의 답방이었다. 1946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남과 전남 일대를 방문했으며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다.

제주에서 시작된 삼남지방 순회는 부산·진해·한산도로 이어졌다.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김구의 추앙은 각별하여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했을 때 충무공 영정에 참배하였다. 실제 『백범일지』에 “고금도의 충무공 전적지, 금산의 7백 의총과 승병 영규의 비 등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적기도 하였다. 그 다음 행선지는 여수·순천·보성·광주·함평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김해·창원·진주·전주·목포·군산·강경 등지도 시찰하였다.

백범마을 백화마을

白凡 金九

1946년 보성을 떠난 김구가 도착한 곳은 광주였다. 대성초등학교에서 열린 '김구선생환영기념강연회'에서 서민호 광주시장은 김구에게 귀국동포 전재민 戰 災 民들의 어려운 처지를 말했다. 이에 김구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받은 금품과 선물·해산물·육산물 등을 전재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증했다. 당시 귀국동포 전재민들은 학동 8거리 일대에 움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서민호 광주시장은 김구의 희사금과 광주지역 유자들의 도움을 받아, 100세대가 살 수 있는 4~4.5평의 작은 집을 마련했다. '백 가구가 화목하게 살아라.'는 의미로 '백화百和마을'이라고 이름하였다.

2011년 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곳에 새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백화마을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마을의 유래도 잊혀지게 되었다. 이에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김구와 백화마을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록하기 위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2015년에는 백범정신 선양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시단법인 백범문화재단이 이곳에 광주백범기념관을 건립하였다.



광주 대국부인회 회원들과 함께 1층 원회에서 두 번째 준아라(1946)



광주백범기념관 개관(2016.10.20)



광주 지역 유자들과 함께 1940



광주 학동 천년우로 509 역사공원과 광주백범기념관

겨레의 큰 별이 지다

金九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랴!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잔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백범어록 중에서 -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김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49년 들어서 주변에서는 암살을 걱정하였으나, 김구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왜놈들이 죽일 일은 했어도, 내 동포에게 죽을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일축하였다.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친일반민족 세력에게 암살되었다. 평생을 나라와 민족만을 사랑했던 김구의 생명 뿐 아니라, 조국 통일의 염원도 앗아간 것이다. 김구는 7월 5일 용산 효창원에 안장되었다.

1년 후, 김구의 예언대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시기 직후의 김구



김구장례 추례식 현장